

조미향·박종여 高法도 의원직 상실형

“인터넷신문 배너광고-홍보 기사 댓가성있다 선거법 위반”

서울고법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이유없다’ 항소 기각

조·박 의원 “대법에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도림동-구로5동)과 박종여 의원(국민의힘 구로1-2동)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이제 대법원 법리심리만 남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제404호 법정에서 조미향, 박종여 구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1심 형량인 벌금 200만원이 타당,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1심 선고가 벌금 200만원이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성수제 재판장은 주문을 통해 “1심의 판결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볼수없어 1심 형량을 유지, 피고인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조미향 구의원



박종여 구의원

고 밝혔다. 이어 성 재판장은 “본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할수 있다”고 말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2019년 6월13일 조미향·박종여 두 의원의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B신문의 배너광고 관련 기사를 댓가성으로 보고 두 의원에게 200만원을 선고하고, 배너광고 관련 홍보성 기사를 실은 B신문 장 모 대표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 했었다.

조미향·박종여 두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곧 상고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선거 보준비 회계

처리 과정에서 두 의원의 B신문에 실린 호의적인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자료를 구로경찰서에 통보했었다.

이에 두의원은 지난 2019년 1월22일, 4월4일 재판과 5월16일 최종 변론을 하고, 6월초 탄원서

(진정서)와 변론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었다.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지난 2020년 9월18일과 10월16일에 2심 공판을 거쳐 11월18일에 피고인 최후 진술과 변호인 최종 변론, 그리고 검사의 구형이 진행됐다.

당선인은 선거에 있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공직선거법’ 제97조를 위반해 대법원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두 의원에 대해 오는 3월 8일까지 대법원 판결에 여부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선거와 함께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박영선 중기부 장관 ‘서울시장 출마’ 한다

이달말 부처 개각때 ‘출마 선언’ 유력

오는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 후보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전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4선)이 최근 서울지역 의원들을 만나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결심이 섰다. 10년 전 (도전 때) 보다 더 절실히 해지고 절박해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안에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3차 개각이 단행되면, 박 장관의 서울시장 선거 행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은 시점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게 맞는지 고민이 컸다”면서 “하지만 결심이 섰고,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선거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다. 박 장관이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마지막으 로 고민해왔다는 얘기가.

서울시장 도전 의지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절실함’을 강조했다. 서울시장 도전만 3번째라는 점에서 이번 만큼은 더 이상 물러



박영선 중기부 장관

설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2011년 보궐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고배를 마셨다. 2011년 ‘야권 단일 후보 선출 국민참여경선’에서 박 장관은 45.6%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 전 시장(52.2%)에게 뒤졌다. 2018년에도 재도전에 나섰으나, 역시 당내 경선에서 박 전 시장 벽을 넘지 못했다.

박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3차 개각 시점과 맞물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를 넘기는 양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를 포함한 4개 안팎 부처의 개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장관 후임이 정해져야 박 장관도 본격적인 서울시장 선거 행보에 나설 수 있다.

한편 박 장관은 12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출연해, 현직 장관의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중식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이성 구청장, 주민들에 온라인 '신년 업무보고'

'2021 구로를 말하다' 유튜브 '구로구청 방송센터' 통해

이성 구청장이 온라인으로 주민들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구로구는 '2021 구로를 말하다' 영상을 지난 8일 오전 공개했다.

'2021 구로를 말하다' 신년 보고는 주민들에게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 등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 구청장은 영상을 통해 "새해에도 '사람중심 구로, 더 행복한 구로'를 목표로 균형발전도시, 교육문화도시, 일자리창출도시, 스마트산업도시, 녹색도시, 복지안전도시 구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올해 예산편성 현황과 분야별 역점사업, 주요현안 등에 대



이성 구청장이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주민들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신년 보고는 주민들에게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 등을 설명했다.

해서도 설명했다.

'2021 구로를 말하다'는 유튜브 '구로구청 방송센터' 채널을 통해 주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영상

에서 소개된 새해 주요업무계획은 구청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홍길 기자〉

과장·팀장급 63명 등 6급이하 213명 전보 인사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구로구는 지난 18일자로 지역보건과장에 정상임(서울시청 건강증진과 사무관)을 전임 발령 인사와 함께 11일자로 6급 팀장급 63명과 7급 49명, 8급 71명, 9급 23명 등 6급이하 전보와 전임·전출, 교육파견·복귀 등 모두 213명을 인사 발령했다.

감사실 감사팀장에 안용호(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실 대외정책팀장에 문정화(기획예산과) 재무과 계약팀장에 박희정(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에 차준호(자동차관리과) 징수와 세정총괄팀장에 김정민(부과과) 팀장을 전보 발령했다.

◇6급 팀장급 전보(괄호안은 전근무부서)

▲감사실 감사팀장 안용호(감사실) ▲감사실 조사팀장 서동주(대외정책담당관) ▲감사실 민원순찰팀장 심상돈(주책과) ▲대외정책담당관 대외정책팀장 문정화(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협치정책팀장 김신철(기획예산과) ▲재무과 계약팀장 박희정(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서혜경(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차준호(자동차관리과)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장 하정희(행정관리과)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2

팀장 김보경(가리봉동) ▲여성정책과 보육지원팀장 백세영(보건행정과) ▲여성정책과 인구가족팀장 김은숙(주차관리과)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팀장 김금하(고척2동)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장 이상혁(오류1동)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정책팀장 전만식(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시설팀장 박양희(오류2동)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박은진(구로1동) ▲어르신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 박정경(구로4동)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장 박희우(사회복지과) ▲주택과 주택관리팀장 명태용(감사실) ▲도시계획과 상임기획팀장 송수권(신도림동)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장 문형성(재무과)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장 윤진호(사회복지과)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 김현길(위생과) ▲자동차관리과 자동차행정팀장 나용택(도시계획과) ▲자동차관리과 특별사법경찰팀장 권오철(구정연구반)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장 조성희(여성정책과)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임경애(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이상대(주차관리과)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장현실(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여권팀장 안연숙(구로2동) ▲청소행정과 청소기획팀장

김동규(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청소운영팀장 김운재(주차관리과) ▲청소행정과 음식물관리팀장 강은경(오류1동)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 신정옥(다문화정책과)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 박범석(복지정책과) ▲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최은준(여성정책과) ▲위생과 공중위생팀장 조현주(행정관리과) ▲징수와 세정총괄팀장 김정민(부과과) ▲징수와 번호관영치팀장 정오성(부과과) ▲부과과 재산1팀장 안형섭(부과과) ▲부과과 자동차세팀장 안성희(징수와) ▲부과과 지방소득세3팀장 손영숙(징수와) ▲구로1동 민원행정팀장 이상덕(구로1동) ▲구로1동 복지건강2팀장 이해경(어르신청소년과) ▲구로2동 복지건강2팀장 최소연(부동산정보과) ▲구로4동 민원행정팀장 이현실(교통행정과) ▲고척2동 복지건강2팀장 박정자(어르신청소년과) ▲오류1동 민원행정팀장 엄승영(구로5동) ▲오류2동 민원행정팀장 안미나(교육지원과) ▲가리봉동 복지건강1팀장 이상미(복지정책과) ▲박정훈 구정연구반(어르신청소년과) ▲전혜진 기획예산과(지역경제과) ▲조희진 주택과(건설관리과) ▲국연숙 부동산정보과(자동차관리과) ▲김선호 교통행정과(체육진흥과) ▲양기봉 주차관리과(스마트도시과) ▲김은지 자동차관리과(교통행정과) ▲홍민정 청소행정과(자치행정과) ▲김민정 신도림동(총무과) ▲전진원 구로5동(총무과) ▲조영선 고척1동(문화관광과) ▲최성호 보건소(청소행정과).

〈채홍길 기자〉

서울시장보궐선거 D-90 출판기념회 등 금지

구로구선관위 "의정활동보고회·광고 등도 못해"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철)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및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1월 7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출판기념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김유권 기자〉

박진하 신임 구로세무서장 부임

구로세무서는 지난 12월 31일 박진하 신임 서장(사진)의 취임사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납세환경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납세자의 권리의식과 세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 행정을 운영해 국민이 만족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대



적 박탈감을 안기는 지능적 탈세는 엄단 하겠다" 강조했다.

박 신임 구로세무서장은 68년 서울 출신으로 ▷화곡고 ▷세무대 6기 ▷강서세무서 ▷서울청 법인신고분석과 법인1계장 ▷국세청 인사1계장 ▷서부산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동대문세무서장 등을 지냈다.

〈김유권 기자〉

구로소방서 제16대 김용근 서장 부임

구로소방서 제16대 김용근 서장(사진·50세)이 지난 1월 1일 취임했다.

김용근 서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코로나19의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각종 현안을 파악하고 화재 발생시 관내 대형 피해지역·취약대상을 살피는 등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서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해져 선제적 대응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각종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소방활



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신임 김 서장은 서울출신으로 1999년 소방공무원 임용이후 강서소방서 현장지휘대장,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장,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도봉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전문위원 1명 공채에 21명 응모

구로구의회 전문위원 1명 공채에 21명이 응모해 21대1 경쟁률을 보였다.

구로구는 지난 12월 31일 구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지방별정직공무원(5급상당) 1명 채용에 21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정은 1월19일(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일(수) 면접심사, 21일(목) 면접합격자

발표, 2월1일(월) 임용예정일이다. 구의회 전문위원은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와 자치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질의자료 제공,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의회관련 업무 전반이다.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팩스: 02)830-0905
이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구독료: 월 5,000원: 연 50,000원
기사제보: 02)830-09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문의 010-9096-1144

구로역 신축 및 개량사업 본격 추진

2023년까지 국비 388억 들여 출구 신설, 편의시설 등 확충
윤건영의원 “주민의견 최대 반영, 안전·편의성 갖춘 새역사로”

지난해 4·13총선에서 당선된 윤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을)의 공약 1호인 구로역 신축 및 개량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노후한 현 역사를 오는 2023년까지 안전성, 편의성을 갖춘 신역사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필요 예산 388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당선후 윤건영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출구 추가 설치를 위해 국토부·코레일 측과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조만간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1969년 구로 신호소로 시작한 구로역은 1974년 영업을 시작한 이후 1991년 신축역사 준공 외에 이렇다 할 증·개축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74년 당시 하루 평균 2만5천명이 이용했으나 현재는 2.5배 증가한 하루 평균 4만여명이 이용해 승강장 및 대합실이 지나치게 좁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구로역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만성적인 혼잡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현재 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역 광장 방면)와 NC백화점 쪽으로만 출구가 나 있어 유사시 충분한 대피로 확보에 한계가 있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접



윤건영 국회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건설교통부 관계자들과 구로역 신축 및 개량사업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신도림동 대림아파트와 5동 롯데아파트 등에서 구로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백미터를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 운동 당시 지역주민들로부터 구로역 개선과 출구 추가설치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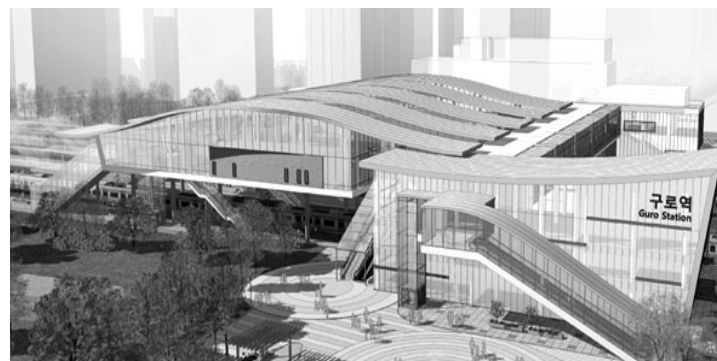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에 등원한 지난해 6월부터 국토부와 코레일등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해왔으며 작년말 정기국회에서 국비 30억원, 코레일 예산 45억원, 총 75억원이 반영되어 통과되었다. 나머지 예산은 연차별로 반영

될 예정이다.

특히 신축 역사에 출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협의는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로구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윤건영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들이 함께 구청장을 면담하고 구로역 주변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출구 추가설치 등)을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작년 연말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우선 확보했고 구로구는 조만간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건영 의원 측은 지자체, 코레



구로역 리모델링 완공 후 조감도.



구로역 현 역사 모습.

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건영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사업의 초기 단계로 설계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종 설계안에 출구 추가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구로구, 코레일 측과 지속 협의의 중이며 금명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구로역 신축 및 개량사업이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출구 증설, 편의시설 확보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로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로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이 한팀이 되어 구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에 투자예산 등 1,570억 확보”

투자 1,356억-서울시교육청 예산 123억- SH 89억원 등

김인제 서울시의원 밝혀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의 구로구 투자예산 1,356억 3천5백만 원과 서울시교육청의 구로구 학교 시설사업비 123억 8천 8백만 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구로구 소재 임대주택 시설투자비 89억 4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인제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 분야 :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예산7억 2천 5백만 원 등 총 7건, 19억 5천 9백만 원.

• 환경보전 분야 :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4억 3천만 원, 안양천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10억원, 도시숲(바람길숲) 조성 19억 5천 9백만 원, 향동도시농업체험장 조성 15억 원, 운수근린공원 조성 5억원, 천왕근린공원 조성 2억 6천 6백만 원 등 총 32건, 187억 8천 8백만 원.

• 도로·교통 분야 : 안양교 확장 196억 4백만 원,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5억원,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273억 4천 5백만 원 등 총 8건, 547억 5천 9백만 원.

• 주택·도시관리 분야 : 공공주택 건설 34억 4천 8백만 원, 오류동 94-11번지의 일대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 5천 2백만 원, 운수공영차고지 복합 입체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5백만 원 등 총 9건, 76억 4천 9백만 원.

• 도시안전관리 분야 : 오류철도고가 보수공사 18억 5천만 원, 오류천 단면확장 3억 8천 5백만 원 등 총 24건, 269억 2천 1백만 원.

• 문화관광진흥 분야 :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 5천만 원, 제2책보고 조성 8억 5천만 원 등 총 11건, 126억 7천 3백만 원.

• 산업경쟁력제고 분야 : 오류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등 1억원,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5억원, G밸리 활성화 추진 29억원, G밸리 의료기기지원센터 조성 15억 1천 1백만 원, 우리동네아트테리어 2억원, 구로구 캠퍼스타운 3단계 추진 2억 1천만 원 등 총 11건, 109억 6천 4백만 원.

• 일반행정 분야 : 구로구 CCTV 고도화 1억 5천만 원, 구로



김인제 서울시의원

구 마을생태계 조성 3억 5천 3백만 원, 구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9억 1백만 원 등 총 7건 19억 2천 4백만 원을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사업비는 오류남초 소방시설개선 2억 2천만 원, 오정초 방수공사 등 2억 8천 2백만 원, 운수초 담장개선 2억 3백만 원, 천왕초 놀이시설개선 7천만 원, 하늘초 휴게공간조성 등 4천만 원, 향동초 복도환경개선 등 1억 2천만 원, 오남중 강당겸체육관 설계비 등 2억 6천 4백만 원, 우신중 학생식당환경개선 2억 1천만

원, 세종과학고 교실 및 기숙사환경개선 등 3억원, 오류고 교사동 방수공사 1억 3천 1백만 원, 우신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억 7천 1백만 원, 서울정진학교 안전관리 1억 2천 9백만 원 등이다.

이밖에도 구로구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8,574세대의 도배 및 장판교체, 옥상방수, 조명기구 교체 등 환경개선을 위해 89억 4천 5백만 원이 투입된다.

김인제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이다. 2021년에는 주민피해 최소화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했다”라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코로나19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연도는 변해도 나눔은 변함없다”

연말·연시 성금, 백미, 이불, 밑반찬 지원 줄이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구로구의 이웃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한일가스산업(주)(대표 홍순철)과 (주)씨큐브(대표 이규호)가 각각 1,000만원을 구로구에 기부했다. 같은 날 JNK디지털타워대표위원회(회장 송석원)도 880만원, (주)씨씨미디어서비스(대표이사 김기수)가 500만원, (주)세원엔피디(대표 이왕종)는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 한국전력공사 구로금천지사(지사장 금병선)가 400만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협의회(회장 이상덕)는 100만원을 구에 전했다.

30일에는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지역 앵커시설 시범운영기관인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이 가리봉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불 50채를 전달했고, 오류동 숲에리움 관리사무소(소장 안미정)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백미(10kg) 10포를 구입해 오류1동주민센터에 기부했다. (주)아보브네이처(대표이사 박명규)도 손소독제 10



2020년에서 2021년으로 해가 바뀌어도 구로구의 이웃사랑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상덕 위원장(사진 왼쪽)이 성금 100만원을 이성구청장에 전달하고 있다>

만개와 소독 티슈 1만6,000개를 기증했다.

24일에는 (주)성우인터컴 윤재현 대표이사가 1,000만원을 기부했다. 같은 날 고척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창호)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감귤 50박스를 전했으며 고척1동 장학회(회장 우두하)는 모범학생 8명에게 각각 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새해에도 나눔 행렬은 계속 되

고 있다.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가 6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했다.

오류1동 나눔가게인 여민락(사장 유재숙)은 6일, 소우주(사장 박지호)는 4일 복지대상 가구에 각각 밑반찬을 전달했다. 구로2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김인숙)도 2일 관내 홀몸 어르신 가구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오류중서 감사패 받아 “학교 교육발전과 주변 교육환경 개선 노력”



사진 왼쪽부터 신미현 총학부모 회장, 홍제남 교장, 이재만 구의원, 김현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고척1·2,개봉1동)은 지난 11일 오류중학교(구로구 고척2동 소재)로부터 학교 발전에 헌신하고 노력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홍제남 교장과 각 학년 주임교사, 김현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학부모 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류중학교 교장실에서 진행된 수여식에서, 홍 교장은 “학교 교육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환경개선에도 앞장

서는 등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므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감사패를 받은 후 이재만 의원은 “오늘 감사패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앞으로도 지역내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교육환경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한병성 한성정보기술(주)대표, 구로구 장학회에 1,000만원 기탁

한성정보기술(주) 한병성 대표가 지난 13일 구로구 장학회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오후 3시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한병성 대표는 “미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금에 써 달라”며 1천만 원을 이성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이성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 자리에는 구로구장학회 이홍복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채홍길 기자>



사진 왼쪽부터 김상재 행정관리국장, 한사람 건너 한병성 대표, 이성구청장, 이홍복 구로구 장학회 사무국장.

구로세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로 확대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여주면 인하액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자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세무서 소득세과 02)2630-7363 문의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문헌일 회장

충청향우회 구로구을연합회 임원

충남도민회 중앙회 회장
충청향우회 중앙회 공동대표
구로구을연합회 회장
문헌일
명예회장 : 이계명
고문 : 박병구, 최재무, 정달호, 이철수,
주호일, 김갑순
상임부회장 : 천재형
부회장 : 박용순, 조동익
자문위원 : 이종운 위원장 외 22명

감사 : 이은산, 박상연
이사 : 강갑석 외 23명
총무이사 : 성성모, 장창희
재무이사 : 정진기
여성회장 : 박종여
사무국장 : 황영락
청년회장 : 정재욱
산악회장 : 이용화



충청향우회 구로구을연합회

구로구 가마산로 229, 2층 201호 (구로동, 성보빌딩)
전화 02) 852-1101

“서남권 자치구 연대로 ‘더 좋은 안양천’ 만든다” 구로·금천·영등포·양천 ‘안양천 명소화’ 손 잡았다

안양천 종합관리계획 수립, 각 구 사업 상호연계, 시설 중복설치 자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가 더 좋은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로구는 “서울 서남권 대표하천인 안양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로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가 뜻을 모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안양천 생태복원, 휴식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로 인해 하천관리 효율성 저하, 사업 중복 등의 단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구로구는 자치구 경계를 뛰어넘는 안양천 종합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제안했고, 나머지 3개 자치구가 화답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성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등 4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모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자치구들은 ▲안양천 종합 관리계획 수립 ▲생태복원 연속성 유지 등 각 구청 사업 상호연계 추진 ▲안양천 내 특정 시설의 과다한 중복 설치



구로구가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와 함께 더 좋은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성 구청장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자제 ▲안양천 각종 시설 공유 ▲안양천 50리 물빛 장미길 조성 ▲산책로, 둔치 등의 연속성 확보 ▲위해식물 합동조사 및 제거 ▲연 1회 이상 합동회의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김수영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안양천과 인근 자연환경에 대한 통일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접 자치구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안양천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구로시니어클럽 방문 격려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지난 7일, 오류문화센터 3층에 위치한 구로시니어클럽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10월에 개관한 구로시니어클럽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시니어클럽은 어르신 일자리사업 전담기관으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 구로구청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해 마스크착용 캠페인, 환경미화활동 등 코로나19 감염예방활동 사업 전개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형 일자리와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상담,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훈련 등 10여개 사업, 고용인원 약 400명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양임순 관장으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니어클럽 근무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박 의장은 어르신 재능과 경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 어르신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7일 오류문화센터 3층에 위치한 구로시니어클럽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비대면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형 일자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을 마친 박 의장은 “구로시니어클럽의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노후가 한층 더 안정되고 행복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어르

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고척골목시장 상점가 ‘간판·비가림 천막’ 설치

구로구가 고척골목시장 상점가에 간판과 비가림 천막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골목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 깔끔하고 편리한 장보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

진됐다. 구로구는 먼저 점포명 확인이 어려운 31개소에 간판을 설치했다. 간판은 가시성과 통일성을 고려해 원형의 돌출형 간판으로 제작했다. 21개 점포를 대상으로 노

유희상의 열린 칼럼



고려시대에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는 속담이 있었다. 고려에서 하는 정책이나 법령이 사흘 만에 바뀐다는 뜻이다. 이 속담은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조선공사삼일(朝鮮公事三日)’로 바뀌는데 둘 다 한 번 시작한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할 때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우리

일’이란 말이 있어 어차피 사흘 후 다시 고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사흘을 기다리느라고 보내지 않았습다”고 대답했다. 유몽인은 명재상인 유성룡조차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무턱

작심삼일(作心三日)①

나라 최초의 야담집을 쓴 설화문학가인 유몽인은 ‘어우야담’(於于野談)을 보면 유성룡의 일화가 나온다. 한번은 유성룡이 공문을 각 고을에 발송하라는 명을 내렸다가 실수가 있어 회수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역리가 진작 발송했어야 할 공문을 그대로 가져왔다. 벌써 발송을 해야 할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이다. 유성룡이 크게 화를 내자 역리가 ‘속담에 ‘조선공사삼

대고 떠오르는 대로 하지 말고 사흘 동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뜻에서 일 것이다. 해마다 새해가 되는 1월이면 새로운 목표를 한두 가지씩 세운다. 그 중 단골로 등장하는 계획이 금연과 금주다. 혹은 낭비를 하지 말고 저축을 해야겠다. 올해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등 나를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본지 회장>

고대구로병원, 임상술기교육센터 본격 운영

고대구로병원(원장 한승규)은 지난 5일 오전 9시 ‘고려대학교 구로캠퍼스 임상술기교육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임상술기교육센터는 고대구로병원 응급복합연구원 지하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간호사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실기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장비 및 인체 모형, 표준화 환자(SP),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 실제 의료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준 높은 임상 실습 및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임상술기교육센터에서는 진료실과 시뮬레이션룸, 컨트롤룸 등의 진료 환경이 조성돼있어 응급상황, 처치방법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 실습이 가능하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고대구로병원 교직원들을 비롯 의과대학생, 전공의 등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승규 구로병원장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춰, 의료진 및 의과대학생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고대구로병원이 지난 5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대 구로캠퍼스 임상술기교육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후화된 비가림 천막과 어닝 교체 작업도 진행했다. 사업에는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구 관계자는 “시장 내 영세 상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만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한 ‘따뜻한 마음’

생활치료센터 퇴소 앞두고 힘든 시기 도와준 직원들에 감사편지
대책본부 직원들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모처럼 ‘함박 웃음’

지난 6일 구로구 보건소에 따뜻한 편지 한 통이 전달됐다. 편지의 주인공은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돼 구로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소한 주민이다.

A4 용지 두장을 꼬박 채운 편지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보낸 열흘간의 잊지 못할 경험이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글쓴이는 처음 확진 판정을 받고 당혹감과 불안감에 괴로웠지만, 생활치료센터 근무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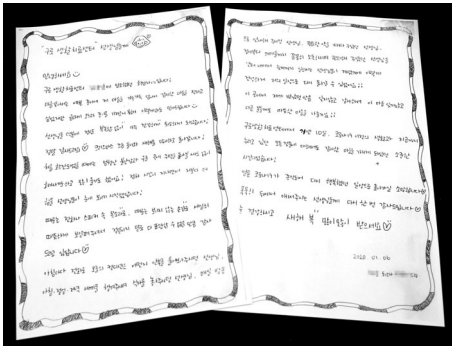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는 바람도 적혀있다.

편지를 전달받은 코로나19 대책본부 직원들은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1년째 주말을 반납한 채 밤낮없이 노력해 온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다.

문영신 구로구 보건소장은 “방역 최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느라 지칠 때도 있지만 주민들의 따뜻한 격려 메시지에 다시 힘을 얻는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이하는 편지 전문

구로 생활치료센터 선생님



코로나19에 확진돼 구로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소한 한 주민이 보건소에 보낸 편지.

들께!

안녕하세요? 구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확진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쁜 종이에 제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급하게 오느라 종이를 가져오지 못해 이렇게라도 인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정말 부족함 없이 아주 건강하게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즈음 들어와 새해를 맞이하고 돌아갑니다.

처음 확진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불안감과 우울 속에 주변을 돌아볼 새도 없이 화가 나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했어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보다 더 힘들 선생님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전화나 스피커 속 목소리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심히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리고

있답니다.

아침마다 전화로 오늘의 컨디션은 어떤지 안부를 물어보아주시던 선생님, 아침·점심·저녁 세끼를 챙겨주시며 식사를 놓아주시던 선생님, 매일 방송으로 안내해 주시던 선생님, 필요

한 약을 가져다 주셨던 선생님, 검사부터 폐기물까지 꼼꼼히 소독하시며 관리해 주셨던 선생님들, 센터 내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저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 곳에서 제가 받았던 만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다른 분들께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게요.

구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난 10일, 코로나19 이전의 생활과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른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묵묵히 뒤에서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2020년 1월 6일 퇴소자 000 드림. <채홍길 기자>

주민 평생교육 서울디지털대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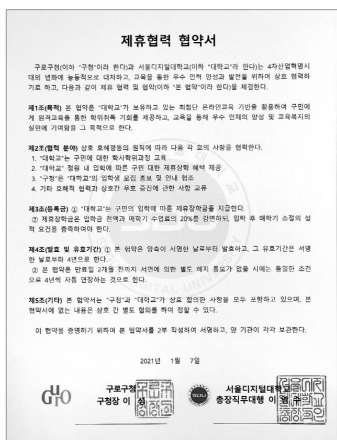
업무협약 체결... 입학금 면제, 수업료 20% 감면 등 혜택

구로구가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이영수)와 손을 잡고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에 힘쓴다.

구로구는 “주민들에게 대학의 우수 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로구민이 서울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면제와 매 학기 수업료 20%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양 기관은 이달 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행사 없이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



간은 4년이며, 별도의 종료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정규 4년제

사이버대학교로 현재 1만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보건의료행정, 외식조리경영, 뷰티미용 등 30개 학과(전공)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2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기계발과 배움의 욕구 충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관내 초중고 졸업식 일정 확정

구로지역 초중고 졸업식이 지난 1월 8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일제히 진행된다.<표 참조>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해당학교 교실이나 원격(화상회의)로 진행된다.

날짜	시간	학교명	졸업식 장소
1.8.(금)	10:00	신도림중	교실
		영림중	교실
		천왕초교	자택
		항동초교	원격(화상회의)
1.11.(월)	9:00	개웅중	온라인 및 교무실
	10:00	서서울생활과학고	교실
	11:00	경인중	교실
		고척중	교실
	-	천왕초교	원격(화상회의)
1.13.(수)	-	오류남초교	원격(화상회의)
1.14.(목)	10:00	세곡고학교	교실
	11:00	매봉초교	교실
1.15.(금)	11:00	항동중	체육관(2층)
	-	하늘숲초교	원격(화상회의)
1.19.(화)	11:00	고원초교	교실
1.26.(화)	10:00	서울정신학교	교실
2.3.(수)	10:00	오류고	체육관(변동가능)
	10:30	구현고	교실
	미정	영서중	미정
2.4.(목)	11:00	예림디자인고	체육관(예정)
		유한공업고	교실
		경인고	교실

날짜	시간	학교명	졸업식 장소
2.5.(금)	10:00	구로고	강당 및 교실(예정)
		신도림고	교실
		고척고	교실
	11:00	우신중	교실
		오류중	교실
		개봉중	한누리관
		우신고	우천기념관
		구로중	교실
		구일중	구일관 2층
		오남중	각 반 교실
		서울공연예고	강당
2.8.(금)	-	개봉초교	교실
2.9.(화)	10:00	오류초교	교실
		덕일전자공업고	강당(4층)
	11:00	신미림초교	교실
		오정초교	교실
		신구로초교	교실
		구일고	은목관(4층)
		구로초교	교실
		동구로초교	체육관
	-	고산초교	미정
	-	온수초교	원격(화상회의)
	-	구일초교	원격(화상회의)
	-	지구촌학교	미정
2.10.(수)	10:00	세곡초교	교실
		영일초교	교실
	11:00	성베드로학교	성공회대
		덕의초교	덕의관
		신도림초교	미정
		개명초교	교실
		미래초교	교실
		고척초교	원격(화상회의)

“사회적경제, 온라인 홈쇼핑으로 만나보세요”

20일 오후 3시부터 ‘구로 착한쇼핑 ON’ 유튜브 생중계

구로구가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홈쇼핑 방송 ‘구로 착한쇼핑 ON’을 마련한다.<사진>

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제품도 소개

하기 위해 ‘구로 착한쇼핑 ON’을 진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구로 착한쇼핑 ON’은 20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방송에는 (사)두리하나다울(제과), (주)라운스(반려동물 의류), (주)스페이스함께(공간장리·환경개선 컨설팅), (주)파인파트너스(침구류) 등 4개 기업이 참여한다. 전문 쇼호스트가 진행하고 기업 대표들이 직접 출연해 제품을 소개한다. 소비자의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도 제공한다. 시청자들은 상품을 정가보다 6~53%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방송 화면 하단에 마련된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면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행사를 주관하는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경품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에어팟(1명), 헤드셋(2명), 이어폰(3명), 커피쿠폰(25명) 등을 증정한다.

이향자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주민들이 온라인 창구를 통해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역일대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본격화

국토부·서울시, 한성상가 등 산업·주거지 민관 합동 개발
현재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3월중 3~4곳 선정



구로역 일대 구로공구상가 뒤편 (한성상가 경인로55길·56길 등 외)과 구로동 CJ제일제당 등이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시범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지난 1월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 중이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서 발표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서울권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20.8.4)에서 발표한 3~4곳 후보지를 선정한다.

사업 배경은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을 통해 노후한 도심내 준공업지역을 재정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모델을 발표하고 '22년까지 총 7천호 부지를 확

보, 시범사업지 3~4곳을 발굴기로 했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인 준공업지역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가 참여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내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이다. LH·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 (총액의 50%, 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20.12.22)되는 등 준공업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축되는 산업시설의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하여, 준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게 된다.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내 3천㎡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참여 부지는 LH·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로역 일대 구로공구상가 뒤편 한성상가 등이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시범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성상가 건물 일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1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1월 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설명회 일정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가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하여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한 공장지역이 일자리 중심의 산업과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산업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주요내용은 민·관 합동으로 도심내 공장 이전부지를 주

거·산업 복합시설로 정비하여, 산업기반과 주택공급을 동시에 확충하고 (대상지) 3천㎡이상 준공업부지이며, 시행방법은 민·관이 공동 출자방식으로 한다.

절차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허가 후 시행하고,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 절차따라 진행된다.

우선 국토부·서울시가 사업후보지를 선정하고 ▶민간·LH·SH가 MOU 체결과 함께 ▶도시건축공동위와 지구단위 계획수립 ▶서울시·자치구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민간·LH·SH는 착 공한다. <김유권 기자>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계속

18일 현재 누적 확진자 총 750명... 사망자도 7명으로 늘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2021년 1월31일까지 다시 2주간 연장된 가운데 18일 현재 서울시 전체 누적 2만명이 훌쩍 넘었고, 구로구 관내 확진자도 750명에 이르는 등 증가세가 여전하다.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6일 하루 10명 추가됐다. 이 중 5명은 확진자의 가족, 1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나머지 4명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10명 모두 15일 검사받고 16일 양성 판명됐다. 730, 732, 734~737, 739번 확진자는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731번은 동작구, 733번은 양천구, 738번은 금천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했다.

730~733번 확진자는 관내 721~722번 확진자(2021.1.14)의 가족이다. 731번과 732번 확진자

는 증상이 나타나 각각 검사했다. 734·735번 확진자는 관내 669번 확진자(2021.1.5)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검사 받았다. 736번 확진자는 타 구 직장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했고, 737번 확진자는 관내 609번 확진자(2020.12.30)의 가족이다.

738번 확진자는 출국 전 검사에서 양성 확진됐다. 739번 확진자는 증상이 있어 검사받고 양성 판정됐다.

현재 누적 확진자는 모두 75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재 사망 7명, 597명이 완치 퇴원, 154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382명, 해외입국자 223명 등 모두 605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개봉동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4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운수 관련 4명, 타시군 접촉자 367명, 해외입국 7명, 기타 24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18일 현재 모두 2만2616명으로 사망자는 271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은 1,490명 ▲송파구가 1,287명 ▲관악구 1,118명 ▲강남구 1,057명으로 4개구가 1,000명을 넘어섰다. 이어 ▲동작구 958명 ▲성북구 949명 ▲노원구 941명 ▲은평구 926명 ▲중랑구 921명 ▲서초구 910명 ▲영등포구 821명 ▲양천구 811명 ▲마포구

796명 ▲동대문구 795명 ▲구로구 750명 ▲강동구 689명 ▲도봉구 671명 ▲서대문구 620명 ▲강북구 577명 ▲광진구 553명 ▲성

동구 541명 ▲용산구 481명 ▲종로구 476명 ▲금천구 378명 ▲중구 324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실내체육시설·카페 등 운영 완화

18일부터 기존 집합금지 대상인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설별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1주간(10~16일)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환자 수가 516.1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날 종료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파 억제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이날 말까지 유지한다.

업종별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선 줄바·태보·에어로빅 등 격렬한 GX 프로그램과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당 4명까지 이용을 허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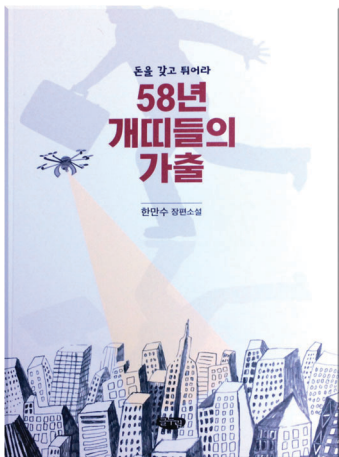
학원은 노래·관악기 교습에 한해 1실당 1인, 칸막이 설치시 4인으로 교습 인원을 제한한다. 숙박시설 운영 금지도 유지한다.

노래연습장은 룸당 4명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코인노래방에 대해선 방역관리자 상주를 조건으로 일반 노래방과 같은 수칙을 적용하되,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하도록 한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11만2000여 개소다. <한만수 기자>

한만수 소설가, 장편 '58년 개띠들의 가출' 출간

2년만에 신작... '돈을 갖고 튀어라' 부제로 '블랙코메디물'



본지 주간이자 소설가이며 시인인 한만수씨가 2년만에 신작 장편 소설 '58년 개띠들의 가출' (도서출판 글누림)을 출간했다. 시인과 소설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문예창작실기지도사 1·2급 자격증을 수여하는 한국문예창작진흥원을 운영하기도 하는 한만수 소설가는 “요즘도 하루 8시간 이상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나온 58년 개띠들도 3년 전에 써 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편소설 '58년 개띠들의 가출'은 한만수 소설가가 '천득이' '우리동네 소통령 선거'처럼 블랙코미디 물이다.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흔히 58년 개띠들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아픈 세대라고 말한다. 6·25전쟁 이후 110만 명이나 태어나 치열한 경쟁을 겪었다. 근대화의 역군이라 할 만큼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IMF때 직장에서 퇴출대상 우선순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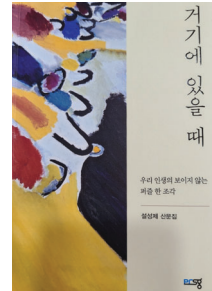
주요 내용은 회장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58년 개띠의 주인공이 갑자기 중국공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소설은 시작된다. 고교 동창인 58년 개띠들은 우연히 거액의 달러가 들어 있는 돈가방을 주었다. 그래도 돈 쓰는 법을 몰라서 짜장면을 사먹거나 모텔을 전전하며 여행을 한다. 그들은 돈 가방을 잃어버린 주인인 조직폭력배와, 로비자금을 조폭들에게 환전 부탁을 한 재벌 회사의 꼬나풀인 형사들이 뒤를 쫓는 것도 모르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다가 결국 허무하게 끝이 난다.

한편 한만수 시인·소설가는 실천문학에 장편소설 '하루'로 등단한 이후 대하장편소설 '금강' (15권)을 비롯하여 150여 권의 소설을 출간했다. 시집 '백수블루스'와 6권을 출간했고, '문예창작의 정석'을 비롯하여 3권의 작업서도 출간했다. 고려대학교 박사 과정에 있으며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소설창작 강의를 하고있다. (도서출판 글누림/ 가격 15,000원)

〈김유권 기자〉

설성제 작가 제4 산문집 '거기에 있을 때' 출간

225페이지 4부로 주옥같은 문장 사실적 묘사



설성제 작가가 4번째 산문집 [거기에 있을 때]를 출간(푸른생각)했다.

225페이지에 1부 [무심히, 그리고 유심히]를 비롯 주옥같은 문장들은 4부로 나누어졌다.

읽다보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물론 자아를 관찰하게 만드는 묘한 마력을 가졌다. 누구나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상실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작가는 울이 풀린 기억에 뜨개코를 걸어 아름다운 수작업을 완성해간다.

누구에게나 찰나의 순간은 주어진다. 하루 온종일 평화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다가도 돌아보면 끊임없이 움직인 파장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 비극과 희극 사이에서 시소(seesaw)를 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작가는 희극과 비극 사이에서 따뜻한 온기 쪽으로 시선의 방향이 기울어져 있다. 글을 읽노라면 배려와 이해의 연속이다. 그러나 가끔은 날선 채찍을 가하기도 한다.

일단 1부에 수록된 [무심히, 유심히]를 따라가 보자. 그녀는 어느 날부터가 관공서 식당에서 식권을 받아 밥을 먹어왔으나 공무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내식당에서 외부인들은 식사를 금지시킨다.

“관청(官廳)이란 단어에서 청(廳)자에는 집 엄에 들을청(聽)이 깃들여 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을 위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질타한다.

이 종인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일상으로 달려드는 자극과 반응, 그 사

이에 서서 삶을 은은하고 진솔하게 풀어간다”며 “편 편의 글에는 봄날의 포근한 햇살도 도시 생활의 고단함도 분주함 속에 여백을 길어내는 지혜로 머물게 한다”고 했다. 그리고 “숨 가쁘게 때론 한가롭게 유목적 삶을 살아가는 매력이 눈부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인이며 수필가로 활동하는 이서원씨는 “온전히 대상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몰아임체의 합일에서만 글을 쓰는 진실한 작가”라며 “글 대부분이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는 동시에 그 사유적 의미가 궁극적인 것, 즉 구경을 찾아 나서려는 성찰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녀의 산문집 [거기에 있을 때]를 읽다보면 추위는 온데간데없고 따뜻한 수목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아를 만나게 된다. [거기에 있을 때] 산문집은 울산문화재단 2020 비대면 예술창작활동 지원 선정사업으로 발간됐다.

설작가는 2003년 [푸른 서랍]으로 예술세계 신인상을 받았으며 수필집으로 [바람의 발자국] [압화] [소만에 부치대]가 있으며 현재 울산문인협회, 한국에세이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윤주 객원기자 333news@hanmail.net〉

60~65세 취업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경비/청소등 전문 무료 알선 기관)

100세 시대... 아직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과연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준비서류 : 이력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7:00)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

구로구지회 (신도림역 2번출구, 02)852-459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39, 1층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륙판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빠른 정보는 로또와 같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에세이로 대학에 입학합니다.

등록번호 2019-002126

문예창작의 혁명!
문학이라 읽고 문예라 쓴다.

문예창작실기 지도사 자격증

문학(文學)은 학문이고
문예(文藝)는 예술이다.

문학적으로 쓰면 답습이고
문예적으로 쓰면 창작이다.

세계 최초!
문예적 글쓰기 작법 완성.

왕초보 기준으로 6개월에 장편소설 완성할 수 있다.

한국문예창작진흥원

02-2636-3765